

GENESIS GV80

2,5 l Turbo Petrol Engine / Premium Line 5 Seater / 20" Alloy Wheel Medium Metallic Gray

Total Price (Incl. VAT)

69.810,00 €

Fuel Consumption (NEFZ Combined)

9,7 l/100km

CO2 Emission (NEFZ Combined)

220 g/km

Energy Efficiency

D

Fuel Consumption (WLTP Combined)

11,3 l/100km



CO2 Emission (WLTP Combined)

250 g/km



ORDER

DELIVERY

Pick up your Genesis at a Genesis Studio or have it delivered to your doorstep.

☒ Genesis Studio Pick-up ☐ Doorstep Delivery

We will inform you promptly when we have your Genesis ready for pick-up.

GMD Mobile GPA Department

Theatinerstrasse 40-42 80333 Munich
800 7244161

Next

QUOTE

Quote Number 00005138
Your Name Seyoung Park
Phone Number +821090918302
Email sengsengudon@gmail.com

VEHICLE SUMMARY [VIEW DETAILS >](#)

FINANCE

Payment Option Cash
Total Price (Incl. VAT) 69.810,00 €

Buy Now

SALES CONTRACT



Amazon City

Posted October. 23, 2017 07:47, Updated October. 23, 2017 08:57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Thursday that more than 80 cities submitted a proposal to Amazon's public bidding finding a city with more than one million inhabitants to build the second headquarters in North America. Governors are eager to host Amazon that announced to invest five billion dollars (around 5.64 trillion won) to build its second headquarters and employ some 50,000 locals.

New Jersey Gov. Chris Christie proposed seven billion dollars in tax incentives over the next 10 years. That is two billion dollars more than Amazon's investment. Stonecrest Mayor Jason Lary in Georgia State has announced that he is willing to rename the city "Amazon" and has offered Amazon CEO Jeff Bezos life-time mayoralty. Arizona's largest city, Phoenix, has also suggested changing the name to "Phoenix, Amazona."

The address of Kia Motors factory near Atlanta, Georgia, is "7777 KIA Parkway West Point, GA 31833." The state government paved the road and built a training institute for the company when Kia invested one trillion won to build a factory in 2010. Kia received 500 billion won in total including tax incentives back from the state government. The governor himself saw that the factory was given an address with four 7s, the lucky number. Local residents call it "KIA-Ville" that provided jobs to an economically declining, textile industry-based city. The city of Mlaba in Poland changed its centuries-old name to "Mlaba-LG town" after LG Electronics' TV manufacturing factory was constructed in October 2003.

South Carolina Gov. Henry McMaster said, "Samsung makes me happy," in the public hearing about a safeguard on Samsung and LG washing machines held by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in Washington, D.C., against Whirlpool, the U.S. washing machine manufacturer that demanded the government to lay high tariffs on Samsung and LG. Samsung Electronics invested 380 million dollars (around 435 billion won) to construct a washing machine factory in Newberry, South Carolina. While officials and residents are business-friendly in other countries, it is truly worrisome to think that Korea is not so friendly to its companies.

Honda New Accord V6 offering high performance and comfort

The car in point here is the Honda New Accord 3.5 V6. The ninth-generation facelift Accord adjusted the external design with a new family-friendly look and increased its commercial value with Apple CarPlay. Moreover, improved sash rigidity and suspension bolster the Accord's repertoire of driving talents.

Honda is one of the most active automakers in the world. They reintroduced the high-performance sports car NSX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and launched the lightweight sports car S660. For a while, it seemed that they were concentrating on ordinary, everyday cars, but they once again started to produce "fun" cars. Recent launches of Honda are exhilarating men.

The Accord is a high-volume car jockeying with Toyota Camry for the top spot in the North American market for medium-size sedans. Particularly, its durability and convenience are highly assessed, and it was designated as the best model for seniors. Such assessment is unusual for a car producing 282 horsepower. The Accord showcased features different from German cars during the test drive. Long story short, the Accord is a comfortable sports sedan.

The facelift resulted in a modern external design. Changes in the frontal design are especially noticeable. Its high-tech features are highlighted by newly designed LED headlamps and a 'solid wing face' grille. Started from Honda's premium brand Acura, the solid wing face grille smartly exhibits the glamorous appeal of chrome, nullifying the stodgy impression of the material.

The unique design of the headlamps' light-emitting unit is reminiscent of the Audi A8's Matrix LED headlights. The headlamps do not provide selective beaming, but they are the best item for a luxurious appeal. They elevate the class of the car. At the back, clearer LED tail lamps and highlighted details at the bottom of the bumper add to the sporty vibe of the car. Body-colored side mirror connectors are stylish.

The interior layout is mostly unchanged. Honda's unique dual-screen and seamless design remain to be the same. High-gloss black, instead of silver, is used for the control pad of air conditioner, adding to the car's luxuriousness. Classy materials are used for the dashboard panel and the steering wheel spoke, and the wood panel is trimmed for a modern vibe. It offers wireless smartphone charging and Apple CarPlay.

The New Accord is a sports sedan with impressively high performance. In addition, the car provides comfort in everyday driving. The usual fatigue following a test drive did not kick in this time, which made the car all the more impressive. Higher driving performance along with trendy and fashionable design makes it worth noting for customers considering a medium-size sedan.

비자가 15만달러에 NFT를 구매한 이유

개인 정체성 나타내는 고유한 상징, NFT 열풍



Dave Morris

© 2021년 9월4일 15:04

나는 꽤 오랫동안 암호화폐 산업이 한 주만이라도 큰 이슈 없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왔다. 하루라도 걱정 없이 숙면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3일 비자가 15만달러를 내고 크립토펙크(CryptoPunk) NFT를 “역사적인 상업 공예품 컬렉션”에 추가한다는 발표를 했다. 비자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NFT는 디지털 커머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비주류에서 주류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특정 사건이나 변곡점이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최근 몇 달간 2가지 이상의 변곡점을 겪었다. 첫 번째는 한 국가 전체가 비트코인을 수용했던 사건이었다. 그 이후에는 미국 전역에서도 비트코인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상원에서는 월렛 프로그래머가 브로커인지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나는 비자의 크립토펙크 구매가 NFT의 필연적인 주류화 과정에서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NFT는 이미 “SNL”에도 나온 적이 있고, [통 브래디](#)부터 Jay-Z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명인사가 NFT 발행에 나섰다. 그러나 주류 금융 기관이 NFT를 구매한다면 상황은 또 한 번 크게 달라진다.

사실 15만달러는 비자가 누릴 홍보효과(이 기사를 포함)를 고려하면 거저나 다름없다. 그러나 비자의 발표로 인해 [2000만달러의 크립토펙크 거래](#) 열풍이 시작되었고, 이 열풍이 쉽게 식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의 불가피한 질문이 생겨난다. 극도로 비싸고 느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25x25 픽셀 이미지에 15만달러를 지불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실용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찾고 있다면 현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합리적이고도 동물적인 인간의 행동 양식을 보면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큰돈을 지불하고 ‘쓸모없는’ 물건을 구매하기도 한다.

NFT를 주로 다루는 WAX 블록체인의 공동 창립자인 윌리엄 퀴글리는 결혼 반지를 두고 “딱히 쓸모가 없는 물건인데 사람들이 1만에서 2만달러의 가격을 지불한다”고 말했다.

퀴글리는 인류의 생활이 점점 더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NFT같은 디지털 상품이 보석 같은 물리적 지위의 상징에 도전장을 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Jay-Z](#)와 축구선수 [오델 베컴 주니어](#)는 이미 수만달러 이상에 이르는 크립토펙크를 구매했고, 이를 트위터 아바타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현재로서 NFT의 가장 흔한 사용 사례일 것이다. 별다른 쓸모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NFT는 대체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기본적으로 고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NFT는 비트코인이나 ETH 토큰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원장상에 존재하지만, 1 비트코인은 수백개의 다른 비트코인과 동일하다. 즉, 비트코인은 “대체 가능한” 토큰인 것이다.

NFT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불변성을 띄지만, 비트코인과는 달리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한다. 1만 개의 크립토펙크가 있지만, 각각의 크립토펙크는 고유하고, 이 고유성이 토큰의 가치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비자는 약 3800개의 펙크 중 단 하나를 구매했을 뿐이다. 크립토펙크는 2017년에 시장의 초창기 때 생성된 NFT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

NFT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특정 입력값에 따라 변화하도록 프로그램된 상호적인 토큰도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타입은 이미지 형식의 NFT이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JPEG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신뢰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주 크립토펙크는 모든 데이터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옮겼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비자가 크립토펙크를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자산이 더 안전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NFT가 출시될 것이며, 특히 펙크 같은 8비트 시리즈가 급속하게 온체인 스토리지로 전환될 것이다. 투자자는 이 기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매우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바로 NFT는 고유한 디지털 물체라는 것이다. NFT는 비트코인에도 없는 독점성을 갖추고 있다. 사실, 현실 세계의 지위 상징 역할을 하는 물건 중 NFT만큼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찾기 힘들다.

NFT 투자 펀드 펀다멘탈 랩스(Fundamental Labs)의 매니징 파트너인 헨리 러브는 누군가가 NFT 아바타를 구매할 때 “NFT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해준다”며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맞춤형 롤렉스와 비슷하다. 즉,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의 NFT 구매가 화제를 일으키고 NFT가 롤렉스나 다이아 반지에 비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NFT 열풍은 일반인 사이에서 폭넓게 퍼져나가고 있는 듯 보인다. 메이저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시(OpenSea)의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8월 거래량이 1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것도 그저 일부일 뿐이다.

트위터와 텔레그램에서는 NFT 수집과 생성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몇 년 전 이지(Yeezy)나 슈프림(Supreme) 상품 출시와 마찬가지로 NFT 드롭 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

내부자의 투기로 인해 열풍이 지속되는 부분도 크지만, 단순 투기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이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 NFT는 그저 **돈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정체성과 취향에 관한 것**이며, 훨씬 더 폭넓은 사용자 기반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개인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나 NFT에는 큰 장벽이 있고, 특히 크립토펙크 같은 이더리움 기반 NFT는 더욱 그러하다. 이더리움의 높은 거래 수수료로 인해 비교적 저렴한 자산의 구매와 판매가 비실용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 나는 NFT 열풍에서 혼자 뒤쳐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60달러짜리 아바타 NFT를 구매하려고 했다. 그러나 60달러짜리 아바타에 붙는 거래 수수료가 50달러였고, 이것이 높은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것이 바로 WAX나 플로우(Flow)같이 낮은 수수료에 비교적 저렴한 수집품을 제공하는 독립 체인의 성장 잠재력이 큰 이유이다. 또한 이는 상당한 신뢰성 프리미엄이 있는 이더리움 상의 NFT시장에 더 큰 광풍이 불어 닥칠 것임을 예고한다. 이더리움이 더 낮은 수수료의 **지분증명(POS) 시스템으로 전환**을 마칠 때 저가 NFT는 빛을 발할 것이다.

영어기사: 박세영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NFT

#비자

#크립토펙크스

불황에서 손해를 피하기는 원래 어려운 법

2020년 3월 11일 | By: NewsPeppermint | 경제, 세계 | 댓글이 없습니다



다시엘 하멧의 범죄 추리소설 “몰타의 매(The Maltese Falcon)”에 등장하는 샘 스페이드 형사는 자신이 맡았던 실종자 사건을 회고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등장인물 플릿크래프트는 기동이 쓰러지는 사고에서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죠. 플릿크래프트는 인생의 무작위성을 직면하고 사라지기로 합니다. 수년간 여기저기를 떠돌던 플릿크래프트는 예전과 비슷한 삶으로 돌아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 오후 네 시에는 골프를 치는 삶으로. 스페이드는 플릿크래프트가 “사고에 적응했다가, 더는 기동이 쓰러지는 일이 없자 다시 일상에 적응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았습니다. 플릿크래프트가 가까스로 피했던 대들보와 비슷해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겁니다.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편 경제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그 악영향은 주식시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곧 은퇴하려는 사람이나 주식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이라면 이번 일로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러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 수익 손실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주식을 구매할 메리트가 없지만, 불황이 오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냉철한 투자자는 불황에서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더 싸게 사들이는 기회를 찾습니다.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겁니다. 주식은 영속적인 증권입니다. 불황으로 잃은 수익은 우편 발송 오류로 잃어버린 배당금 수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자산은 타격을 입지만, 배당금은 다음번에 또 받을 기회가 있고, 그 기회는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이것이 주식의 가치이기도 하죠.

불황이 심각했던 2008년과 2009년에는 몇 달 만에 S&P 500지수가 거의 반 토막 났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경기 침체가 아주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황을 인내하고 넘기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서 기동이 쓰러졌을 때 플릿크래프트는 “누군가가 삶의 두터를 열고 인생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불황도 이와 비슷하죠. 갑자기 온 세상에 리스크가 넘쳐나고, 직업도, 사업도, 연금도, 삶의 방식도 위협을 받습니다. 이때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경솔한 일처럼 보입니다.

낮은 주가를 통해 이득을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겁니다. 보유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50대 50이나 60대 40인 투자자는 금리가 낮아져서 채권이 올라가면 채권을 판매하고,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구매하면 됩니다.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씩 계속하는 거죠. 더 대담한 투자자들은 싼값에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비축해둡니다. 한 투자자는 “이거 재미 있어지는데, 싶은 순간이 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재미있다”는 것은 주가가 적어도 20%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40% 하락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주식을 좀 고를 줄 아는 사람은 가격이 내려가면 구매할 주식 목록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할 때 좋은 가격에 “좋은 주식”을 구매하려는 전략입니다. 삶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좋겠죠. 좋은 주식(경쟁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은 이미 가격이 높고 불황에도 좀처럼 가격이 내리지 않습니다. 한편 인기가 없는 주식은 수익이 비해 가격이 낮고, 하락 폭도 더 크기 마련이죠. 이들은 보통 장기적인 전망이 좋지 않은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입니다. 은행, 자동차 제조, 석유화학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식을 보유해 재미를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여행 금지령이 발동되거나 공급망 흐름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수익이 폭락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대담한 투자자들은 이런 기업들도 살펴봅니다.

플릿크래프트는 인생의 허무함에 충격을 받습니다. 현실적인 샘 스페이드 형사는 인생이 덧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스페이드 같은 투자자들은 살다 보면 기동이 쓰러지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고 빠르게 적응합니다. 또 이따금 쓰러지는 기동이 영원히 쓰러져 있지는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바닥을 칠 때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

원문보기

번역: 박세영